

일 주 문



자비나눔기금 기부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20일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침마다 출연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은 12월 27일 KBS1아침마당 '목요특강'의 강사로 출연해 마음공부 등에 대해 강연한다.



불학연구회 윤독희 지도
권오민 경상대 교수는 2013년 1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2달간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불학연구회(회장 성덕) 윤독희를 지도한다.



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이대호 프리아구 선수는 12월 21일 부산 원오사 대웅전에서 열린 명정장학재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림, 각목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최근 초기경전 '4부니까야' 17권을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스님과 지도법사 각목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8일 오전 10시4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각목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니까야 완역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스님의 감동적인 니까야 4부 완간 원력에 비하면 종단의 관심이 그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각목 스님은 "빠알리 삼장 중 현재 3분의 1 정도를 번역한 상태"라며 "10년 안에 완역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나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번역에 매진하겠다. 나태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불교평론 발전기금 기탁



폐간 사태를 겪은 <불교평론>이 2013년 봄호부터 복간될 예정인 가운데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스님이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범용 스님은 지난 9월 불교평론 폐간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평론지는 지속적으로 간행되어야 한다"며 200만원을 공공기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범용스님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불교평론은 한국불교의 지적 성장을 위해 할일이 많은 잡지"라며 "속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청화 스님은 이시대 참 수행자”

열반 10주기 맞아 청화사상연구회 기념세미나 ... '염불선'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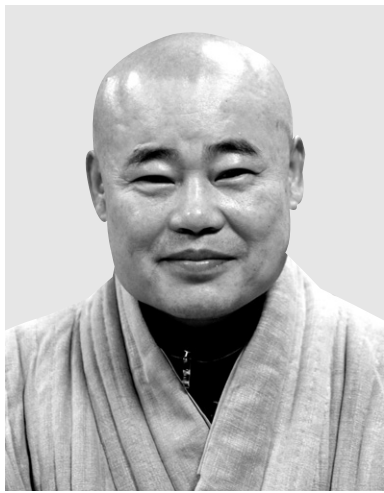
40년 동안 정좌불와, 하루 한끼의 일종식. 입적하는 날까지 스스로의 방청소를 했던 수행승의 전범 청화 스님.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 꼽히는 청화(淸華·1923~2003) 스님에 대한 선양이 본격화된다.

청화사상연구회 회장 무상 스님(곡성 성륜사 주지)은 12월 20일 서울 종로에서 기 다간담회를 열고 청화 스님 선양 사업을 펼칠 것을 밝혔다.

무상 스님은 이날 "2013년 1월 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염불선은 청화 스님이 주요 수행법으로 펼쳤던 선법으로 곡성 성륜사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아 선방에서 간화선과 염불선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순선(純禪)시대 조사(祖師)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박사의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박사의 '사조도신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육조혜능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이 각각 발표된다.



청화 스님의 청빈한 삶

1월 5일 학술세미나 열고

청화 스님 주창한 염불선 고찰

선서화전 개최·법어집 발간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조준호 박사는 "염불선은 간화선이나 목조선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선종시대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중심적인 사상이고 행법"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상 스님은 "동아시아 대승불교 역사에서 수많은 행법들이 대두했는데 간화선, 목조선, 염불, 주문 등이 그것"이라며 "한국불교 전통에서는 간화선이 주류 또는 중심행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초기 선종 당시의 행법 전개를 살펴보면 염불선을 비롯한 다른 행법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 스님은 이어 "청화 스님은 평생을 수행으로 살다 가신 분"이라며 "정통불법(正統佛法)의 재전명"을 표방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현대 불교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집중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이어 청화사상연구회와 백산문도회는 2013년 선사화전과 법어집 발간, 추모사진전 개최 등 열반 10주기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40여 년간 20여 곳의 토굴에서 수행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정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평생 동안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061)363-0081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동종 56차 정기 총회

12월 17일 상계동 총무원서



사)대한불교조동종은 12월 17일 상계동총무원에서 제 5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총정 덕룡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감찰원장 행성 스님, 총회위원장 행봉 스님을 비롯 각 부장스님 및 총회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삼귀의례에 이어 의장스님 인사말씀과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도 예산계획안과 신규사업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동종 발원지 중국동산보리선사에 한국법당건립 신축공사는 내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4월에 점안 법회를 갖는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은 스님

동국대, 연말연시 기부 바람 '훈훈'

동문·기업인·불교계 등 거액 후원금 줄이어

연말을 맞아 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을 염원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쾌척하는 미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농학53)이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주)신라교역과 신라문화장학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준형 회장(경제60)도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보냈다. 두 회장은 특히 매년 학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

또한 KCC 정삼영 명예회장(법학55)은 국가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하게 된 후배들을 위해 사재 1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보냈다. 정삼영 동문은 올해 3월에도 장학금으로 1억원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동국대 발전을 위해 총 28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주)삼백 최진식 회장(무역77)은 올해 행정·외무·입법고시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고시장학금 외에도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아 이 자리에서 총 2억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삼성물산 정연주 부회장(경영69)과 엠베스터그룹 서정호(경영71) 회장은 지난 11월 15일 장충동 엠베스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영대학 비전선포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경영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

불교계에서도 훌륭한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며 거액의 후원금을 연이어 보냈다. 서울 봉은사는 11월 16일 동국대에 1억원을 전달했으며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억원을 보냈다.

또 정릉 영각사 흥진 스님은 5000만원을 기부하며 "어릴 적 가난했던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혀 주위의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 열려



대한불교진흥원은 12월 13일 동국대에서 제3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원불교문화상은 동국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교학술분야와 불교장작분야에서 실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불교학술 저서부문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불교와 무한의 근대> △논문부문 김기종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15세기 불전연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기획부문 한상기·정동환 동국대 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디펜스 게임' 기획, 김상

남 동국대 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의 '관광가이드매체개발을 위한 불교 원형 스토리 애니메이션' 기획 △시나리오부문 우수진 동국대 영상대학원 연구원의 <와니는 위경중>이 선정됐다.

순수 및 응용 불교 관련 저술 및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한 불교학술분야에는 저서부문 600만원, 논문부문 300만원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한 불교장작분야에는 기획부문 각각 300만원, 시나리오부문 4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됐다.

노덕현 기자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재임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12월 17일 제338차 이사회에서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불암사 회주, 사진)을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스님은 이미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했고, 올해 4월 27일 다시 추대돼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이번 추대로 일면 스님은 다시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됐다.

스님은 1990년대 초반 어려움에 처했던 광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 다시금 튼튼하게 기틀을 닦고,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광동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탈바꿈시켰다. 일면 스님의 이사장 임기는 2013년 2월 27일부터 4년이다.

추대 직후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경쟁력 있는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1959년 해인사



에서 명허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자운 율사를 계사로 1964년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흥국사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위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근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호계원장, 동국대학교 이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제2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3. 1. 13.(일) 오후 2시~4시 부산 해운대 벅스코 컨벤션홀 3층

- 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 대 상: 친가·외가 내 3대에 걸쳐 3인 1조 구성
참가인원: 108팀 (324명)
참가비: 팀당 3만원 ※포교 기금에 사용
퀴즈내용: 예성문제 배부 60%, 일반상식 10%, 『부처님의 생애』(조계종출판사) 30%
상품: 상금(장학금 총 700만원) 및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증명스님 휘호
조계종 사찰에 한함
접수 및 문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 전송
예성문제 및 신청서는 다음 카페 'cafe.daum.net/bsbuddhism' 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bsbuddha@daum.net 전화 051)501-7554 팩스 051)501-9333

